

# ‘광주FC 데뷔골’ 신창무 “죽을 각오로 뛰었다”

지난달 30일 제주전서 선제골  
긴 부상 털고 가족에 득점 선물  
팀 연패 탈출에도 결정적 역할  
“신창무 복귀는 영입과도 같아”



‘전천후 자원’ 신창무 (31)가 광주FC의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격수와 미드필더, 수비수까지 위치를 가리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에 전방과 후방을 설 새 없이 오가는 활동량까지 갖춰 광주 특유의 ‘주도권 축구’의 핵심이 되어가는 모양새다.

신창무는 지난달 3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20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7분 만에 환상적인 대포알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트렸다. 광주는 신창무의 활약으로 2-1 승리를 거뒀고 8위에서 7위로 올라 파이널A권(6위 이상) 진입 발판을 마련했다.

신창무는 이날 경기 후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정말 오랜만에 선발로 리그를 뛰었다”며 “저를 믿고 선발로 기용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하다. 끝까지 넣고 팀도 이길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창무는 지난해 광주 유니폼을 입었지만 여러 차례 부상이 찾아오는 불운으로 2023시즌 9경기 출장에 그쳤다. 선발은 한 경기뿐이었고, 올해도 이날 경기를 통해 첫 선발 출격했다. 하지만 그만큼 더



광주FC 신창무가 지난달 3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20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7분 선제골을 터트린 뒤 아내를 위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절하게 준비 과정을 거쳤다.

그는 “선발로 뛰었을 때 기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됐다”며 “너무 들뜨지 않고 준비한 대로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결과까지 따라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정호 감독은 신창무가 부상에서 복귀한 직후 “기대를 많이 했다. 부상에 시달렸음에도 몸을 책임감 있게 잘 만들었고 훈련장에서 태도도 좋았다. 신창무가 살아나면 영입 효과와도 같은 상황이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창무는 “준비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들뜨지 않고 준비한 대로만 하자고 생각했다”며 “감독님이 굉장히 덩덤하게 먼저 뭘 거니까 준비 잘하라고 하셨다. 못 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뛰었다”고 강조했다.

신창무는 성실성을 높이 평가받는 선수 중 한 명이다.

대구FC에서 강원FC, 강원에서 광주로 이적할 때 모두 자신의 선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정호 감독 아래에서 더 열심히 땀 흘릴 수밖에 없다.

그는 “평소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런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며 “이정호 감독은 항상 부족한 점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훈련장에서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직전 경기인 수원FC와 원정 경기에서 연패에 빠진 뒤에는 이정호 감독으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듣기도 했다. 이 질책은 신창무가 연패 탈출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자양분 역할을 했다.

신창무는 “갑쟁이처럼 공 차지 말라고 딱 한 마디를 해주셨다”며 “공을 잡으면 항상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전진하지 못하고 수비에 밀려났는데 더 과감하게 시도하려고 한 것이 득점에도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득점 직후에는 공을 유니폼 상의에 넣고 젓병을 빼는 시늉을 하는 세리머니를 선보이기도 했다. 현재 임신 5개월인 아내와 곧 낳을 아들 ‘겨울이’에게 선물하는 장면이었다.

신창무는 “아내가 저보다 더 마음고생이 많았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타지인 광주 생활을 하면서 친구도 없어서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디어 남편 노릇을 한 것 같다.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규빈 기자



광양여고 축구선수들이 지난달 27일 경남 합천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제3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여고부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축구협회 제공

## 광양여고,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3연패

진혜린 MVP·조혜영 최다득점상

광양여고 축구팀이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2일 전남축구협회에 따르면 광양여고는 지난달 27일 경남 합천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제3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강호 울산현대를 2-0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광양여고는 이번 대회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단 1골도 내주지 않는 무실점으로 철벽 수비를 자랑하며 결승에 올랐다.

광양여고는 결승 전반서 울산현대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으나 0-0으로 마쳤다. 전열을 가다듬은 광양여고는 후반들어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팀을 거세게 몰아붙인 끝에 후반 70분 조혜영(3년)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다.

후반 76분 정하은(1년)의 추가골로 2-0으로 달아난 광양여고는 남은 시간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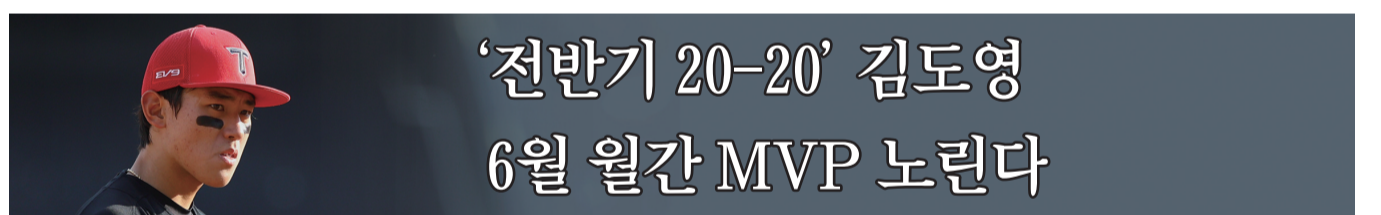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로써 광양여고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연패를 달성하며 국내 여고 축구 최강임을 입증했다.

광양여고는 개인상도 휩쓸었다. 진혜린(3년)이 최우수선수상을, 조혜영이 최다득점상을, 김채빈이 최우수 골키퍼상을 각각 수상했다. 권영인 감독과 이슬기·김효선 코치는 각각 최우수감독상과 최우수지도자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영인 광양여고 감독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이 대회 3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낸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매우 기쁘다”며 “이번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선수권과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시즌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최동한 기자



## ‘전반기 20-20’ 김도영 6월 월간 MVP 노린다

3-4월 이어 두 번째 수상 도전  
윌커스·김혜성·최정 등과 경쟁

KBO 리그 최초의 월간 10홈런-10도루 주인공이 되며 3-4월 월간 MVP에 등극했던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사진)이 이번에는 전반기 유일 20홈런-20도루 주인공으로 6월 월간 MVP에 도전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6월 월간 MVP 후보를 2일 발표했다.

후보에는 김도영을 비롯해 SSG 랜더스 최정과 NC 다이노스 맷 데이비슨, 키움 히어로즈 김혜성(이상 야수), NC 카일 하트, 롯데 자이언츠 애런 윌커스, 삼성 라이온즈 이승현, 키움 아리엘 후라도(이상 투수)가 이름을 올렸다.

김도영은 3-4월 월간 MVP에 이어 두 번째 수상에 도전한다. 김도영은 6월 24경기에 출장해 타율 0.352(91타수 32안

타)로 21타점과 27득점을 생산했다. 특히 8홈런과 6도루를 추가하며 KBO 리그 역사상 다섯 번째, KIA 구단 역사상 첫 번째 전반기 20홈런-20도루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6월 득점 1위와 홈런 2위로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했고 출루율이 0.468(4위), 장타율이 0.681(3위)을 기록하며 OPS(출루율+장타율)가 1.149에 육박하며 2위에 올랐다.

앞서 김도영은 지난 3-4월 월간 MVP 투표에서 총점 64.71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기자단 투표 30표 중 23표(76.7%), 팬 투표 44만8880표 중 23만6767표(52.7%)로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득표율을 보였다.

김도영은 3-4월 31경기에서 타율 0.338(130타수 44안타), 26타점(공통 4위), 29득점(2위), 10홈런(공통 3위), 14도루, 출루율 0.380, 장타율 0.638(2위)을 기록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공격 지표로 두 번째 수상을 노린다.

또 3-4월 김도영과 제임스 네일, 정해영, 5월 제임스 네일과 박찬호 등 KIA에서 복수 후보를 배출했던 것과 달리 6월에는 김도영이 홀로 후보군에 선발돼 타구단 선수들과 경쟁을 펼친다.

김도영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는 윌커스가 전망된다. 윌커스는 6월 다섯 차례 선발 등판에서 36.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45로 4승을 챙겼다. 특히 지난달 4일 KIA와 맞대결에서 무사사구 완봉승을 거두는 등 활약을 펼치며 다승과 이닝 1위에 올랐다.

김혜성과 최정 등도 유력 후보군이다. 김혜성은 6월 타율 0.429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고, 안타 38개를 때리는 동시에 16개의 볼넷을 끌라내며 출루율 역시 0.529로 최고였다. 최정은 지난달 27일 9년 연속 20홈런 대기록을 달성했고, 장타율 0.703으로 다른 야수들을 압도했다.

한규빈 기자

## 호남대 남자배구팀, 창단 11년만에 첫 우승

전국대학배구 단양대회 B그룹

호남대 남자배구팀이 ‘2024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대회’ 단양대회 남대부

B그룹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창단 11년 만에 첫 우승이다.

윤우경 감독이 이끄는 호남대는 지난 1일 충북 단양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대

회 남대부 B그룹 구미대와 마지막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25-22, 24-26, 23-15, 25-18, 15-12)로 이겼다.

이로써 호남대는 4개 팀이 참가해 풀리그로 진행된 이번 대회 B그룹에서 3전 전승을 기록하며 2013년 창단 이후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동한 기자